

---

## 중 국

---

### 對중국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해야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WTO 가입 조건으로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출이 크게 늘고 있으며, 중국 서비스 업체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역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머물러 기업과 개인 모두 서

비스 개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데다가 정부의 제조업 우선 발전전략에 따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제조업의 견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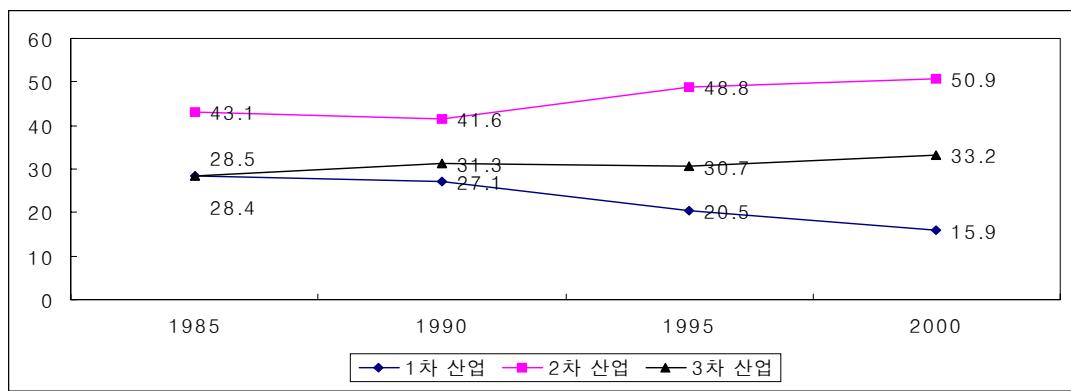
####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 낙후돼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경제구조가 자본

〈그림 1〉

중국의 1차·2차·3차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1년판.

〈표 1〉 중국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분류

장 려	제 한	금 지
- 인프라 건설 및 경영: 지방철도, 교량, 터널, 도시지하철, 경전철, 도로, 공용부두	- 운수서비스 : 택시, 주유소	- 송전망, 용수, 가스관 건설 및 경영
- 과학기술·환경정보 컨설팅	- 인프라 : 간선철도, 항공운수	- 우편, 전기통신 경영관리
- 정밀기기 설비 수리 및 판매	- 금융업 : 은행, 보험, 증권, 리스	- 선물 등 파생금융
	- 유통업 : 도소매, 무역	- 라디오, 영화, TV, 방송
	- 기타 : 여행사, 병원, 회계·법률사무소, 골프장, 관광지·공원개발, 인쇄·출판, 학원학교 등	

자료: 중국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주의 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그 발전 속도도 여전히 느리다. 2000년 말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52.7%), 대만(65.6%), 필리핀(52.9%), 태국(49.2%), 말레이시아(39.7%), 인도네시아(35.8%) 등 아시아 주요 개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sup>1)</sup>

또한,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8.5%에서 2000년 33.2%로 2.7% 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중 2차 산업 비중은 43.1%에서 50.9%로 7.8% 포인트 상승하여, 서비스 산업의 성장 속도도 제조업에 비해 느렸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 WTO 가입으로 서비스 시장 대폭 개방

이러한 중국 서비스 산업의 낙후는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외

국인투자의 제조업 진출은 우대한 반면, 서비스업 진출은 억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6월 제정(1998년 1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이다. 여기에는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장려·제한·금지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투자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동 목록에 따르면 철도, 교량 등 일부 인프라 개발·경영과 첨단설비 수리 및 판매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투자 제한·금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물론 제한분야라 해도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국 정부는 당해 업종의 중국내 공급과잉 여부, 중국 기업의 생산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자허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다 해도 단독투자 제한, 업종별 각종 제한 규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sup>2)</sup> 이 때문에 3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조업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이 확정되면서 중국

1) ADB, Asia and Pacific Key Indicators, 2001.

2) 실제로 인프라 건설, 도·소매, 무역, 여행사, 병원 등은 4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고, 택시 운수업은 중국내에서 구매한 차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며, 주유소는 고속도로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 금융업에 있어서도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 지역에 소재한 일부 은행에 한해서만 위안화 영업이 허용되어 왔음. 물론 이러한 규제조치들은 WTO 가입으로 점차 완화될 전망임.

〈표 2〉

중국의 산업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 추이

구 분	단위 : %				
	1991	1995	1998	1999	2000
1차 산업	1.8	1.9	3.9	4.4	3.2
2차 산업	81.5	69.7	62.5	64.1	72.3
3차 산업	16.7	28.4	33.5	31.5	24.5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년감, 각년도

서비스 시장의 진입제한과 까다로운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조업도 서비스 시장 개방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사 생산제품의 국내 판매와 유통, 생산 활동과 관련한 원·부자재 수입 등에 대한 많은 제약이 대부분 사라질 것 이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개방일정과 내용을 보면, 담배 등 일부 국가 독점사업과 통신서비스 등 극히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이 2007년을 전후하여 자유화된다. 향후 3~5년 뒤에는 내·외국인 평등 대우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3)</sup> 중국 정부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 개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대폭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sup>4)</sup>

### 중국 서비스 산업 발전 목표 수립

WTO 가입으로 서비스 업종이 대폭 개방됨에 따른 중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최근 서비스 산업의 발전전략 수립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결과로 지난 1월 말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10차 5개년 계획중 서비스업 발전 가속을 위한 몇 가지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10·5期間加快發展服務業若干政策措置的意見)을 발표하였다.<sup>5)</sup>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총 12개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표 3〉 참조). 따라서 이 문서는 향후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對중국 서비스 부문 진출 확대해야

이러한 중국 서비스 산업의 개방 확대 및 제도 변화에 맞추어 우리기업들의 对중국 사업전략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조업체는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영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외

3) 중국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개방 내용 및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TO 중국시장을 꽉 잡아라"(KOTRA 홍콩무역관, 2001. 2. 1) 참조.

4) 중국은 조만간 외국인투자의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간이 될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 규정',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 '외국인 투자 장려 첨단기술 제품목록'을 개정할 것을 발표하였음(국제경무소식, 2002. 2. 4).

5) 이는 국무원이 1992년 제정한 '제3차 산업 가속발전에 관한 결정(關於加快發展第三產業的決定)' 아래 10년만에 제정된 중앙정부의 서비스 산업 발전 관련 공식 문서임.

〈표 3〉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 목표와 주요 내용

목 표	주 요 내 용
업종별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조정: 교통, 유통, 음식, 공공사업, 농업 서비스 부문</li> <li>- 발전 추진: 체인점·대리점 경영, 특허 경영, 택배, 복합운수, 전자상거래, 부동산, 물류 관리, 관광, 교육훈련, 문화, 체육</li> <li>- 적극 발전: 정보통신, 금융, 보험, 회계, 자문, 법률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li> </ul>
취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각 분야의 서비스영역을 넓혀 실업인구 흡수 노력</li> <li>- 지역간 인구이동 제한 완화</li> <li>- 임시직, 계약직 다양한 취업 방식 확대로 고용 증진 도모</li> </ul>
국유부문 구조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분이 많은 철도, 항공, 통신 등 공공사업 분야 기업 개혁 기속</li> </ul>
민간 이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 비중이 높은 무역, 공공사업, 여행, 문화, 통신, 금융, 보험분야의 민간 이양 확대</li> <li>- 대외무역, 교육, 문화 중개서비스업의 진입 규제 완화</li> </ul>
대외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보험, 증권, 전신, 대외무역, 상업, 문화, 여행, 의료, 회계, 자산평가, 국제운수 부문의 개방 확대</li> <li>- 경영 컨설팅, 대외공정 청부, 노무합작 장려</li> <li>- 기타 외국 서비스기업의 진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li> </ul>
서비스 부문 관리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산하 영리성 서비스 부문은 기업조직으로 전환, 비영리 서비스 부문 역시 경쟁체제를 도입해 자체 운영경비 조달 유도</li> </ul>
민간 복지시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병원 등 기업내 사회복지 시설의 독립법인화 유도</li> <li>- 국가재정으로 신설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내부 복지시설 설립 금지</li> </ul>
도시 서비스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의 공업용지 축소 및 이의 서비스산업 용지로 용도 변경</li> </ul>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 직업학교에 서비스업 관련 학과 증설</li> <li>- 서비스 부문 직업 훈련 활성화</li> <li>- 서비스업 전문 자격증 제도 실시</li> </ul>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과 지방정부는 서비스업 투자 비중 확대 추진</li> <li>- 서비스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li> </ul>
민간소비 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대출을 이용한 서비스 부문 소비 개선 유도</li> <li>-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비증가 유도</li> <li>- 유급 휴가제 확대로 도시 서비스 산업 발전 유도</li> </ul>
서비스업 관련 정부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정부는 본 규정에 의거, 지방별 서비스업 관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시행</li> </ul>

자료 : [www.china.com.cn](http://www.china.com.cn), 2002. 1. 27.

국인 투자기업은 자사 생산제품 외에는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승인을 받은 합자 유통기업이 아닌 제조업체는 유통업을 추가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다. 또한, 수출도 자사 생산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며, 별도의 수출입 권한을 허가받지 않은 이상 대리 무역이 불가능했다. 여기에다 내수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중국의 복잡한 유통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국은 향후 5년 내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년 내에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 의무와 외환수지 균형 의무 등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자체 유통망 구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표 4〉

우리나라 對중국 투자기업의 산업별 비중 추이(건수 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단위 : %
1차 산업	1.9	2.1	2.1	1.7	0.9	
2차 산업	87.8	84.3	90.7	86.8	86.5	
3차 산업	10.3	13.6	7.2	11.5	12.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2차 산업이 86% 이상이며, 3차 산업은 13%에 불과하다. 중국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對중국 서비스업 진출은 지나치게 부진한 실정이다. 이미 진출한 서비스업종의 면면을 보더라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이 대부분으로, 이미 진출한 제조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법률·세무 등의 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진출 이후, 운전자금 부족, 정보 수집 애로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확대는 단순히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배후 지원세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 보험, 법률·세무, 유통 부문에의 진출이 확대되

어야 한다. 이들 서비스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對중국 진출은 영업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한·중간 경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sup>6)</sup>

현재 우리나라는 건수기준으로 총 해외 투자의 4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국 투자기업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기업들에 비해 건당 투자규모가 작다. 이는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진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정보 수집과 운전자금 적기 조달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과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全 善 俊】

6) 일례로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000년에 비해 8배 증가한 24억 7,100만 달러(322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파이낸셜뉴스 2002. 1. 29). 이들 금융기관은 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업무에 주력해 왔으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현지금융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와 이를 통한 현지금융 조달은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